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 의 관계

김영순¹, 오은주^{2*}

¹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²창신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Young-Soon Kim¹, Eun-Ju Oh^{2*}

¹Department of Nursing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²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B시와 K 지역 소재의 3개 간호 대학에 재학 중인 232명이었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5월 15일부터 동년 6월 15일까지이며,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4.93점으로 중간이상이며, 하위영역에서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정인식, 감성조절, 감정활용 순으로 나타났고, 비판적 사고성향 3.43점이며, 하위영역에서 지적통합, 개방성, 진실추구 순이며 도전성이 가장 낮았다. 전공만족도는 3.76점으로 나타나 중간이상이었고,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학업성적, 간호학과 선택 동기, 학교생활어려움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계획 시에는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interventions to improv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To set up the research data,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32 nursing students in 3 nursing colleges of cities K and B from May 15th, 2014 to June 15th, 2014. SPSS 21.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s of emotional intelligence (4.93), critical thinking (3.43), and major satisfaction (3.76) were above the moderate level bu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grades, and motivations for choosing the major and challenges in college life.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Therefore, when designing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the major satisfaction,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a plan that enables them to develop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itical thinking.

Keywords : Critical thinking, Emotional intelligence,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며, 학업, 진로, 취업문제 등의 고민이 가장 큰 시기이다[1].

대학시기 동안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이 높고, 향후 사회로의 진로탐색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2-3].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대학에서의 전공을 선택할 때 충분한 진로상담과 자신의 소질, 적성, 흥미를 고려하기

*Corresponding Author : Eun-Ju Oh (Changshin University)

Tel: +82-10-5525-4458 email: eunju218@cs.ac.kr

Received April 15, 2016

Revised (1st May 16, 2016, 2nd June 8, 2016)

Accepted July 7, 2016

Published July 31, 2016

보다는 대학 입시성적에 맞추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전공을 선택한 경우 학업부족음 및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져[4] 졸업 후의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에서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경우는 35%정도이며[6], 전공심화 과정에 들어간 3.4학년의 경우에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43%정도로 보고되고 있다[7]. 간호학과의 경우 대부분 의료기관으로의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입학 후 간호학과에 적응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말한다[8]. 간호교육은 간호 대학생이 교육과정을 수료 후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서 전문직관을 가지고 임상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대학시기에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현장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높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직업을 찾고 구하는 진로탐색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9]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최근 감성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 있어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그 감성을 조절하며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0].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지지가 되어야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줄도 알아야 함으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 대학생들에게 감성지능은 필요한 기술이며, 감성지능은 학습성취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11].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 자기 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은 높아지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또한 최근 보건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역할확대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다양한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이란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 하에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 하려는 개

인적인 성향, 습관을 말한다[13].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문제를 직면했을 때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지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며,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6].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과 관련 있는 변수로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12],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27]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 존중감, 취업스트레스의 관계[25]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26], 문제해결능력[28]과의 연구 등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오고 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비판적사고성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론적인 지식과 실습을 병행하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research)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 및 K지역 소재 간호대학 3, 4학년에 재학중인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5월 15일부터 동년 6월 15일까지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강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 보고형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후 바로 회수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G power program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는데 효과 크기는 중간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예측 검정력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 표본 수는 172명으로 나타나 탈락율을 반영하여 총 27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38명을 제외한 232명(회수율: 86%)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번호: E-2014038).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각 대학을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승낙을 받은 후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에 참여하게 한 후 회수 하였다. 참여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을 경우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연구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2.4 연구도구

1) 감성지능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Wong& Law[10]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WLELS)를 정현우[17]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으로 자기감성이해, 타인 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7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이 높음의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정현우[17]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2) 비판적 사고성향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권인수 등이 [18]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적통합 6문항, 창의성 4문항, 도전성 6문항, 개발성 3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4문항, 진실추구 3문항, 탐구성 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이다. 최저 35점에서 최고 1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6$ 이었다. 역 문항은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3) 전공만족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혜숙[5]이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만족도를 이동재[19]가 전공만족관련 18문항으로 선택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은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2$ 이었다.

2.4 연구도구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32명으로 성별은 여학생이 94.8%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은 5.2%이다. 연령은 평균 22세이며 21세가 37.1%로 가장 많았고, 22세 34.5%순이었다. 종교는 유 64.2%, 무 35.8%이고, 학업성적은 3.0~3.9 78.4%, 4.0 이상 15.1% 2.0~2.9 6.5%로 순이었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직고려 48.7%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과 타인권유 22.8%, 적성과 취미 20.3%, 기타 4.3%, 고교성적 3.9%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어려움은 학과수업 60.8%이 가장 높았고, 임상실습 21.1%, 기타 9.9%, 학우와의관계 8.2% 순이었다. 가족, 친척 중 간호사가 있음 37.1%, 없음 62.9%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2)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2	5.2
	Female	220	94.8
Age(yrs)	21	86	37.1
	22	80	34.5
	23	25	10.8
	>24	41	17.7
Religion	Yes	149	64.2
	NO	83	35.8
Grades (average)	<3.0	15	6.5
	3.0-4.0	182	78.4
	>4.0	35	15.1
Admission motivation	High employment	113	48.7
	Attitude& interest	47	20.3
	Correspond to score	9	3.9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	53	22.8
	Others	10	4.3
Difficulty in College life	Relation among Friends	19	8.2
	lecture	141	60.8
	clinical practice	49	21.1
	others	23	9.9

Variables	Category	N	%
presence of a nurse among family or relative	yes	86	37.1
	no	146	62.9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감성지능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4.93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자기 감성인식 5.21점으로 가장 높았고, 타인감정인식 5.19점, 감성조절 2.96점, 감성 활용 2.72점 순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43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지적통합이 3.6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방성 3.59점, 진실추구 3.53점, 탐구성 3.52점, 창의성 3.37점, 객관성 3.36점, 신중성 3.33점 순이었고, 도전성이 3.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 전공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6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인식만족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만족 3.82점, 관계만족 3.26점, 교과만족이 3.14점 순이었다[Table 2].

Table 2.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n=232)

Variables	Number	M±SD
Emotional Intelligence	16	4.93±0.71
Self emotional appraisal	4	5.21±0.84
Others emotional appraisal	4	5.19±0.84
Regulation of Emotion	4	2.72±0.62
Use of emotion	4	2.86±0.54
Critical Thinking	35	3.43±0.39
Intellectual integrity	6	3.62±0.52
Creativity	4	3.37±0.80
Challenge	6	3.20±0.53
Open-mindedness	3	3.59±0.58
Prudence	4	3.33±0.61
Objectivity	4	3.36±0.80
Truth-seeking	3	3.53±0.71
Inquisitiveness	5	3.52±0.55
Major satisfaction	18	3.76±0.56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6	4.26±0.68
General satisfaction	6	3.82±0.63
Curriculum satisfaction	3	3.14±0.80
Relationship satisfaction	3	3.26±0.9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정도는 성별

($t=2.50$, $p=.013$), 학업성적($F=4.89$, $p=.008$), 간호학과 선택 동기($F=2.50$, $p=.043$), 학교생활어려움($F=2.89$, $p=.03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고교 성적에 맞춘 경우가, 학교생활어려움은 임상실습인 경우가 감성지능정도가 높았다. 학업성적에 대해 사후분석을 한 결과 4.0이상인 집단은 2.0~2.9인 집단보다 감성지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정도는 학업성적($F=3.81$, $p=.023$), 간호학과 선택 동기($F=2.47$, $p=.04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인경우가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다. 학업성적에 대해 사후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이 4.0 이상인 집단은 2.0~2.9집단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선택 동기($F=2.89$, $p=.023$), 학교생활 어려움($F=2.82$,

$p=.03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간호학과 선택 동기와 학교생활어려움이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다[Table 3].

3.4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간호 대학생들의 감성지능은 비판적 사고성향($r=.459$, $p<.001$)과 전공만족도($r=.511$, $p<.001$)와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또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r=.410$, $p<.001$). 즉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정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수준 또한 높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도 높았다[Table 4].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2)

Variables	Category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Major satisfaction	
		M±SD	t or F(p) Scheffe's	M±SD	t or F(p) Scheffe's	M±SD	t or F(p) Scheffe's
Gender	Male	5.43±0.78	2.50(.013)	3.37 ±0.51	-0.53(.595)	4.00±0.62	1.53(.126)
	Female	4.91±0.70		3.44 ±0.38		3.75±0.55	
Age(yrs)	21	4.91±0.68	0.39(.756)	3.47 ±0.40	0.38(.761)	3.79±0.57	0.81(.489)
	22	4.97±0.72		3.40 ±0.39		3.79±0.58	
	23	4.82±0.71		3.44 ±0.37		3.60±0.47	
	>24	4.98±0.77		3.43 ±0.38		3.7±0.546	
Religion	Yes	4.92±0.47	-0.65(.051)	3.31±0.46	-0.37(.173)	3.90±0.40	0.45(.653)
	NO	5.06±0.70		3.48±0.40		3.82±0.57	
Grades (average)	<3.0 ^a	4.64±0.81	4.89(.008) a<c	3.24 ±0.33	3.81(.023) a<c	3.64±0.65	0.62(.538)
	3.0-4.0 ^b	4.90±0.70		3.42 ±0.37		3.76±0.52	
	>4.0 ^c	5.24±0.62		3.56 ±0.44		3.83±0.69	
Admission motivation	High employment	4.89±0.69	2.50(0.43)	3.38 ±0.38	2.47(.046)	3.7±0.563	2.89(.023)
	Attitude& interest	5.07±0.69		3.58 ±0.36		3.95±0.44	
	Correspond to score	5.31±0.86		3.42 ±0.43		3.74±0.45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	4.78±0.73		3.40 ±0.43		3.62±0.62	
	Others	5.30±0.53		3.49 ±0.25		4.02±0.54	
Difficulty in College life	Relation among Friends	5.10±0.62	2.86(.036)	3.49 ±0.43	0.95(.413)	3.87±0.53	2.82(.039)
	lecture	4.83±0.73		3.40±0.38		3.68±0.57	
	clinical practice	5.16±0.66		3.50 ±0.44		3.83±0.52	
	others	4.95±0.66		3.45 ±0.28		4.00±0.51	
presence of a nurse among family or relative	yes	4.91±0.76	-0.39(.693)	3.39±0.39	-1.32(.187)	3.73±0.53	-0.74(.455)
	no	4.95±0.68		3.46±0.39		3.78±0.57	

Table 4. Correlatio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n=232)

Variables	1 r(P)	2 r(P)	3 r(P)	4 r(P)	5 r(P)	6 r(P)	7 r(P)
1. Emotional Intelligence	1						
2. Self emotional appraisal	.844 ($<.001$)	1					
3. Others emotional appraisal	.682 ($<.001$)	.562 ($<.001$)	1				
4. Regulation of Emotion	-.128 (.051)	-.091 (.168)	-.131 (.046)	1			
5. Use of emotion	.063 (.338)	.060 (.363)	-.018 (.784)	-.009 (.891)	1		
6. Critical Thinking	.459 ($<.001$)	.368 ($<.001$)	.267 ($<.001$)	-.258 ($<.001$)	.116 (.077)	1	
7. Major satisfaction	.511 ($<.001$)	.441 ($<.001$)	.354 ($<.001$)	.001 (.985)	.036 (.584)	.410 ($<.001$)	1

4. 논의

본 연구는 3개의 대학에 소속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정도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봄으로써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감성지능정도는 평균 4.93점이며, 하위영역별로 감성인식이 5.21점으로 가장 높았고, 타인감정인식 5.19점 순이었고, 감성조절 2.96점, 감성활용 2.7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을 한 학기 이상 실시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각각 4.61점[6], 4.76점[20]이었던 결과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임상현장에서 실습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이론적인 지식만이 아닌 실제 환자와 교류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발휘해야하는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간호 대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함양되어지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은 선행연구[6]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순서와 차이를 보였으나 하위영역 중 감성 활용과 감성조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결과는 유사하였다. 개인의 감성을 건설적인 활동으로 활용하는 감성 활용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행동하는 능력인 감성조절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요구될 간호 대학생에게는 배양되어야할 필요한 자질로

사료되며 감성 활용과 감성조절을 향상시킬 방안모색도 요구되어진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비판적 사고성향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평균 3.53점[12], 3.61점[21], 3.57점[22], 3.48점[23]과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으로는 지적통합이 3.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방성, 진실추구, 탐구성, 창의성, 객관성, 신중성, 도전성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간호 대학생은 상황에 적합하도록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성향인 지적통합과 자신의 오류가능성과 편견을 인정하는 성향인 개방성은 높은 반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성향인 신중성과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도전성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간호사로서 활동하게 될 간호 대학생에게는 다양한 대상자의 호소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능력과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함으로 이러한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6으로 나타나 중간이상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인식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 순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의 평균이 3.61점[2], 3.61점[3], 3.56점[9], 3.64점[24]로 나온 결과 보다는 약간 높은 결과이다. 또한 하위영역에서는 선행연구[1][9][24]에서 인식이나 일

만 만족은 지속적으로 높은 반면, 관계만족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교과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이론학습과 임상실습을 함께 병행하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해야하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료되며, 간호 대학생들의 교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학업성적, 간호학과 선택 동기,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이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고교 성적에 맞춘 경우에, 학업성적이 4.0이상인 집단이, 학교생활어려움은 임상실습인 경우가 감성지능 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7][20]들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전공 성적의 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이 3.0 미만인 학생에 비해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여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에서 임상실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난 결과이며, 임상실습은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교류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므로 임상실습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론 지식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학업성적, 간호학과 선택 동기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4.0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2.9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15][25]. 또한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적성과 취미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26]에서 봉사 및 기타동기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간호학과에 진학 시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고려하여 스스로 자신이 전공하게 될 학과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통해 선택한 경우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 할 수 있는 적극성으로 비판적 사고성향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신이 대학에서 전공하게 될 학

과를 선택하는데 있어 수능점수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기 보다는 고등학교 시기에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간호학과 선택동기, 학교생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3], 성적이 높을 경우, 진학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던 연구결과[9][24]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간호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며,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간호 대학생들의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간에는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또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정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수준 또한 높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27] 지지하는 것이다.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검증하고, 간호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는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특성으로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감성지능에 영향을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감성지능이 높은 결과들과[7][20]. 전공만족도가 비판적 사고성향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선행연구[15][25][28]들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업에 적응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기 위

해서는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향상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외의 관계를 분석하고,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증진을 통해 전공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변수들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입생부터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 J. Lee, J. H. Y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22(3), pp. 589-607, 2008.
- [2]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pp. 2937-294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 [3] I. Oh, Moon,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pp. 83-91, 2010.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0.16.1.083>
- [4] Y. K. Au,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kill on a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4), pp. 1029-1046, 2010.
- [5]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9.
- [6] G. Y. Joo, Y. S. Choi,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pp. 7300-7309,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300>
- [7] J. E. Song, H. J. Chae,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pp. 502-512,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502>
- [8]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unselling*, 1(1), pp. 7-20, 2000.
- [9]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pp. 27-36,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 [10]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3, No.3, pp.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11] R. Fernandez, Y. Salamonson, R. Griffiths, "Emotional intelligence as a predictor of Academic Performance in First year Accelerated Graduate Entr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 pp.3485-3492, 2012.
DOI: <http://dx.doi.org/10.1111/j.1365-2702.2012.04199.x>
- [12]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pp. 2749-2759, 2013.
DOI: <http://dx.doi.org/10.5962/KAIS.2013.14.6.2749>
- [13] N. C. Facione, P. A. Facione, & C. A. Sanchez,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e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38), pp. 345-350, 1994.
- [14] M. S. Jung, H. J. Kw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pp. 256-265,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56>
- [15] S. H. Lee, S. E. Chung,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14(12), pp. 340-3349

- 2014.
- [16] J. Y. Lee, Y. M. Lee, S. Y. Pak, M. J. Lee, Y. H. Ju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pp 606-616,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606>
- [17] H. W.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r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usan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7.
- [18] I. S. Kwon, G. E. Lee, G. D. Kim, Y. H. Kim, K. M. Park, H. S. Park, S. K. Sohn, W. S. Lee, K. S. Jang, B. Y. Chung,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6), pp 950-958, 2006.
- [19]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20] E. J. S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1), pp. 5636-5645,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21] M. S. Lee, Y. O. H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2), pp.8738-8744,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738>
- [22] J. Yoon,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4(2), pp. 159-166, 2008.
- [23] J. I.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pp. 6053-6060, 2015.
DOI: <http://dx.doi.org/10.5962/jkasne.2015.16.9.6053>
- [24]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pp. 244-254,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 [25] B. S. Park, Hana. Cho, Park, B. J.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3), pp.1109-111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109>
- [26] I.S. Kim, Y. K. Jang, S. H. Park, S. H. S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pp.33-345, 2011.
- [27] O. S. Lee, M. O. Gu, Kim, M. J.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pp.380-388,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380>
- [28] S. A. Ya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6(4), pp.389-398, 2010.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0.16.4.389>

김 영 순(Young-Soon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석사)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간호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 노인, 중앙.

오 은 주(Eun-ju Oh)

[정회원]



- 2006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다문화, 청소년, 여성 및 임산부 건강증진